

원주~강릉 철도, 강릉시구간 토지보상 본격 추진

강릉본부(본부장 김영하는) 강릉시 구간의 편입 용지(운산동, 청량동 일대)내 지장을 조사를 시작으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보상절차를 진행한다.

지장을 조사 후 7월중에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을 시행하여 토지 및 지장을 소유자의 확인을 진행하게 되어 우선 감정평가가 완료 되는 9월중에는 협의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5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한 구정면, 담산동 일대 보상협약은 7월1일 현재 사유지 326필지중 101필지를 매수하여 매수율 31%의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은 강릉시 구간의 토지 보상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전 구간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본부에서는 올해 사업비 8천억원을 투입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원 50% 기술사 및 석·박사 양성

- 2020년까지 철도선진국 수준 기술역량 확보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오는 2020년까지 정원(1,363명)의 50%를 기술사 자격 및 석 박사 학위를 보유한 핵심인력으로 양성하여 현재 프랑스, 일본 등 철도선진국 대비 약 83% 수준인 철도기술수준을 100%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 우승대 등과의 인학협력을 통해 매년 철도공학 석·박사 30여 명 이상을 배출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철도 분야 최고 실무전문인인 기술사도 본격 양성하여 이론과 실무를 포괄하는 글로벌 수준의 전문 인재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그간 직원들이 바쁜 업무 등으로 기술사 자격취득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감안해 전국 주요 도시에 소재한 전문교육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직원들이 주말 등 여가 시간을 활용해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기술사 취득에 필요한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기술사 자격보유 직원을 멘토로 지정하여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2020년까지 매년 15~20명의 직원이 철도기술사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14년 현재 철도공단은 정원의 36%에 해당하는 입직원이 석·박사 학위(361명) 및 기술사 자격(103명)을 보유하고 있다.

온라인 도서관 서비스개시!

- 전문도서와 학술논문까지 온라인으로 제공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직원들이 모바일과 개인용 컴퓨터로 전문도서 및 학술논문 열람이 가능한 온라인 도서관 서비스를 7월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본사에 Off-line 방식의 자료실을 운영하면서 전문도서 및 논문 등의 대출서비스를 시행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이번에 온라인 서비스 개시로 업무용 컴퓨터 뿐 아니라, 가정의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문도서 및 약 21만 종의 학술논문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각종 연구 조사 활동 등 업무수행과 개인역량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자동차 대출, 반납이 가능한 도서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고 희망도서 추가 신청도 수시로 할 수 있는 등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직원들의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재개발처 관계자는 "직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도서 및 전문도서 대상을 계속 추가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등 온라인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앱(APP)으로 재난사고 초동조치 지원

- 이달부터 자체개발 'KR재난알리미' 시범 운영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철도건설현장 사고사고 발생 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즉시 재난 사실을 전파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KR재난알리미'를 자체개발하고 7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KR재난알리미'는 실시간 사고사고 알림 기능은 물론, 재난 복구관계자와의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도록 구성했다. 특히 사고사고에 대한 신속한 초동조치 지원과 함께 기상청, 소방방재청의 기상특보, 화재, 정전 등 재난정보를 제공해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도움을 준다.

또 GPS를 기반으로 사고사고 주변 소파사, 경찰서, 지자체, 병원 등의 정보제공과 함께 다이렉트 콜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위급상황 시 신속함에서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영지원실 관계자는 "KR재난알리미 앱 개발로 철도 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와의 협업체계를 더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최근 예측하기 힘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관련 3개 기관 국민안전 위해 협업 확대

철도공단(KR) - 철도공사(Korail) - 교통안전공단(TS)

안전품질실(실장 석준근)은 지난달 2일 재난대책상황실에서 철도관련 3개기관(공단, 공사, 교통안전공단)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인접공사 안전관리강화 협업과제' 성과점검 워크숍 시행했다.

워크숍에는 공단(건설본부장, 기술본부장, 안전품질실장), 공사(안전본부장), 교통안전공단(철도항공본부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관련 해외자료조사 발표, 협업과제 추진 1년간 실적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 토론을 통해 철도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다짐했다.

또한 향후 발전방향 토론시간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철도 관리기관의 긴밀한 안전 협조체계 구축에 공감하며 안전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3개 기관 CEO간 업무협약을 7월 중 추진키로 했다.



(안전품질실 박성훈 기자)

골든타임 대처 위한 초동 대응체계 강화

- 실현장 초동조치매뉴얼 발간 및 불시형 비상훈련 지속 시행 -

안전품질실(실장 석준근)은 현장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Golden Time) 내 완벽한 초동조치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중심의 사고보고 및 복구를 위한 초동조치 매뉴얼과 개인별 임무카드를 발간하여 공단 공사관계자 및 전 현장 근로자에게 배포했다.

*골든타임 :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골급한 위험해거 소요시간으로 소방관의 대응시간 단축을 통해 조금이라도 빨리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

특히 초동조치매뉴얼은 행정 절차 중심으로 구성되고 백과사전식으로 나열된 법적 매뉴얼의 단점을 대신해 재난 및 안전 비상상황 시 본사와 지역본부 각자가 수행할 임무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개인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임무를 선별해 조치 완료에 필요한 시간과 함께 명시했다.

예컨대 철도 터널 붕괴사고 발생시 현장소장이 공장지 119나 112에 신고한 뒤 지휘체계에 따라 10분 이내에 상황을 전파하도록 했다.

또한 재난대응 사고복구훈련 방식도 전면 실시하고, 훈련내용을 시나리오로 작성해 미리 숙습한 뒤 진행되는 '예고형 훈련' 대신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 재난 상황 등을 불시에

제시하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불시형 훈련'을 실시하고 그 훈련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품질실 박대희 기자)

시간대별 Flow-Chart

현장	지역본부	본사
10분 이내 -119, 112 즉시 연락 -관계기관 상황연락 -사고 상황 전파 -지휘구조활동 -무형선 철도공사 협조요청	10분 이내 -119, 112 지령 요청 -관계기관 협조요청 -사고 상황 전파 -비상소집 및 현장출동	10분 이내 -유관기관 협조요청 -사고조사팀 파견 -위기관리 상황 및 비상소집
30분 이내 -현장 정보·인명통제 -현장차량유지 -사상자 구조협조 -초기사보보고서 제출 -관계기관 협조요청	30분 이내 -인원통제 및 인명지원 -재난대책반 가동 및 직할관리 -사고복구 관계기관 협조요청(긴급구명)	30분 이내 -재난대책반 가동 -사고조사팀 출동 -재난상황 수시 보고 -초기사보보고서 전파 -연료 충전발표
1시간 이내 -담당처장 현장 지휘통제 -피해현황 조사 -응급복구/복구계획 수립·시행	1시간 이내 -응급복구 및 복구계획 검토 -재해현황 관리 보고 -요청시 유관기관 추가 지원 요청	1시간 이내 -사고 상황 관리 -현상 상황지점 파악 -현장차량 후속조치 -연료 충전발표
2시간 이내 -구조활동지휘 -응급복구시행 -유기물 현장 지원 및 지원 계획 보고	2시간 이내 -응급복구 및 복구계획도 -재해현황 관리 보고 -요청시 유관기관 추가 협조 요청	2시간 이내 -재난상황 수시 보고 -응급복구상황 점검 -현상 및 사상자 후속 조치 요구 -필요시 전파한 긴급경정

[개인별 임무카드]

신호통신처 업무 표준화로 '문제를 가치창출로 전환'

기술본부(본부장 김성환)는 법, 규정, 절차를 준수한 업무처리로 협력사의 불평·불만을 없애기 위하여 소관분야에 대한 표준화된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문제를 가치창출로 전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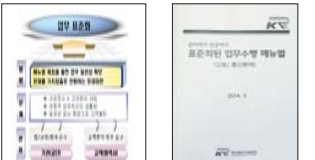
매뉴얼은 최근 불편한 현실을 스스로가 변화하여 고객편익은 향상시키고 내부적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 전반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난 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한 '표준화된 업무수행 매뉴얼'은 지난 2월 시행한 '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후속으로 제1편에는 매뉴얼 방향과 목적을 제2편부터는 발주업무, 주요 업무, 협력업무, 시스템 개요, 참고자료 등을 수록하여 부서 내 모든 업무를 한편의 책으로 파악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제1, 2편으로 모든 직원 동양한 절차(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요소 제거는 물론, 시스템적 관리역량도 강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

본부 관계자는 "협력사로부터 제기되는 절차간소화 등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표준화된 업무수행을 위해 제작하였지만 앞으로 철도 건설사업에 적용하게 될 신호/통신 분야 신기술(LTE-R, KRTC 등)도 발행된 대처와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술본부 서정민 기자)



충청본부 재난대응 CPX훈련 시행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지난달 30일 9층 재난대책본부 상황실에서 본부 직원 10명 및 협력사 직원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역구내 북쪽 21A 선로전환기 전환 불능 장애 발생이라는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재난대응 CPX 훈련을 실시했다.

본부 재난대책본부 지역복구반의 각 반별 지휘 및 통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훈련은 참가자 전원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며 초동조치 능력을 배양했다.

노 본부장은 "재난대응 CPX 훈련을 통해 개인임무를 구체화하고 사고수습에 대한 초동조치 능력을 배양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안전 사고발생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체계를 구축하는게 목표"라고 설명하며 "이번 훈련 실시 결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청본부 강철훈 기자)

